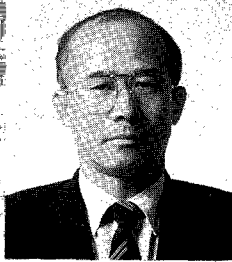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IMF 시대의 양계인의 자세



신 정 재

신촌사료(주) 부사장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국가가 총체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와 의식에서 온 것이라 하겠다.

“내 재직시에는 창피해서 IMF의 구제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전 재경원장관 강경식씨의 발언의 진위를 떠나서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닌 것 같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는 빠른 시일내에 개혁을 해야 할 것이고 이미 금융, 재벌, 공무원 등의 분야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의 전환이라 하겠다.

최근의 외국 주간지는 우리 국민의 빨리 끓었다가 쉽게 식는 냄비같은 의식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IMF가 닥치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의는 금모으기로 절정에 달했다. 이때는 IMF(I am Fired) 즉 “나는 해고 되었다”는 심정으로 전 국민이 긴장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다가 연말 위기를 넘기고 나서 좀 안전하다 싶으니까 이제는 IMF(I am Fine) 즉 “이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국제원유가가 내려가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크게 하향 조정되니까 그동안 자제하던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 언제 우리가 어려웠더냐?는 식으로 교통이 혼잡해 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IMF(I am Forgetting) “나는 이제 잊었어” 하는 표현으로 우리 국민의 IMF에 대처하는 의식구조를 풍자한 기사가 신문에 소개된 것을 보았다.

계란 값이 폭락하고 육계 가격이 원가 이하로 떨어지면 소비촉진 홍보를 해야 한다, 종계 입식을 조절해야 한다, 과잉생산을 자제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양계산물 가격이 회복

혹은 폭등하면 다시 언제 어려웠나싶게 다시
입식을 늘려서 폭락, 폭등을 반복했던 것이 지
난 수 십년간 계속되어 온 양계업계의 역사이
다. 외국 잡지가 꼬집은 우리 국민의 위기 대처
에 대한 비평이 곧 우리 양계업계를 두고 한
비판같아 기분이 썩쓸하면서도 웃기를 여미게
하는 반성의 기회를 주어 고마움을 느낀다.

IMF가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는데에는 전제
조건이 따르고 있다. 즉 저효율 고비용의 현 국
가체제와 국민의식을 “고효율 저비용”의 체제
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란 간단히 정리해고나 해서 인건
비나 줄이고 이에 따른 경비나 줄이는 것이 아
니라 전반적인 개혁, 나아가서 혁명에 가까운
대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안전하다는 은행이 파산되고 그렇
게도 신분보장이 된다는 공무원도 정년퇴직을
보장할 수 없고 공룡같이 커진 우리 재벌을 설
마 어떻게 하라하고 버티던 재벌도 부도 안나
리라는 보장이 없다.

구조조정이란 정부의 지원없이 정말로 적자
생존의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자유경쟁에 맡긴
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국경도 없다는 말이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혹은 특혜를 주어 가면서 투
자를 유치한다는 개혁이다.

일전 김대중 대통령이 농림부 초도순시에서
지난 5년간 40~50조의 예산을 농업구조 개선
을 위해 투자했는데 그 성과가 어떠냐?는 질문
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중 양계업계는 몇천억이 투자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 성과가 어떤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양계인의 IMF는

“I am Fowl(나는 곧 닭이다)”라는
각오가 있어야겠다. 육계로
태어났다면 한달, 산란계로
태어났다면 일년 반의 일생이다.
그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재삼
정신바짝 차려야 할 때다.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였으며 선진양계 구축
을 위하여 효과적인 투자가 되었는가? 더 중요
한 것은 앞으로 계속 정부의 지원이나 축산자
금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고효율
저비용의 경제원칙을 따진다면 아무리 식량안
보 차원에서 농축산물을 자급해야 한다고 하지
만 주식인 쌀과 같은 비중으로, 안보를 빌미로
축산물을 생각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비공식 얘기이기는 하지만 한 재경원 고위간
부는 “40~50조원을 중소기업 제조업에 투자했
다면 훨씬 더 많은 생산과 수출을 했을 것이
다”는 효율성을 얘기한 적이 있다.

이제야 말로 우리 양계인도 IMF 시대의 저
비용의 구조조정과 단순하게 중소 가축은 국제
경쟁력이 있다는 안일한 인식의 개혁이 필요할
때다. 양계인의 IMF는 “I am Fowl(나는 곧 닭
이다)”라는 각오가 있어야겠다. 육계로 태어났
다면 한달, 산란계로 태어났다면 일년 반의 일
생이다. 그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그럴리는 없겠지만) 재삼 정신바짝
차려야 할 때다. **양계**